

야만적인, 너무나도 야만적인

안재근 (2008년 제4회 5·18문학상 수상작)

뇌수액의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그것은 끈끈하다. 강줄기를 따라 매끄럽게 흘러 살포시 우뇌를 감싼다. 우뇌가 잠든 사이 좌뇌가 격렬하게 활동을 개시한다. 두 눈이 충혈되고 맥박수가 빨라진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 땀이 배어나온다.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혈관을 흐르는 피가 산소를 운반하며 비명을 질러댄다. 드디어 남김없이 책의 모든 글자가 머릿속에 입력된 것을 확인한다. 끝이어 어지러움이 엄습한다. 빈혈이다. 낡은 적갈색의 책상이 솟구치며 얼굴을 덮쳐온다. 의식이 흐릿해진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 -

“네가 그 유명한 천재소년이지?”

나는 커피를 입으로 향하던 자세 그대로 굳어진 채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는 빈티지룩차림의 여학생을 올려다보았다.

“역시 짐작이 맞았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인가.....니체를 읽는 녀석이라면 친구할 만한 가치가 있지.”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책을 멋대로 낚아채서 몇 장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거렸다. 교양수업의 과제를 하기위해 보고 있었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럴 틈도 없이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너 수요일에 나랑 전공수업 같이 듣지? 그때 또 보자.”

그것이 연수와의 첫 만남이었다. 내가 보고 있던 책이 그녀의 죽은 남자친구가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녀는 사춘기의 조랑말처럼 거칠지만 알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력(引力)에 스무 살 청년에 불과한 나는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어.”

교회를 나오며, 연수가 말했다.

“근데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그냥 일요일 아침마다 엄마가 워낙 들볶기도 하구, 히틀러같은 목사님이 웃기기두 하구. 습관같은 거야.”

그녀의 말에 의하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종교라는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이다. 세상의 권위적인 것은 모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당최 뭘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아니 그 전에, 도대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날 교회에 데려간 이유가 뭘까. 이것이 항상 외치는 <운명공동체>란 것인가?

그녀는 그런 낡은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열성적인 시위매니아였다. 오늘 오후에도 그녀는 어떤 시위에 참가한다고 했고, 우리는 버스정류장에서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예전에 운동권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던 시절, 그녀는 항상 동아리의 단체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티셔츠는 왼쪽 가슴에 커다랗게 <흙>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농활전문동아리로 착각하기도 했다. 당시 그 동아리는 쌀 수입 반대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안이 체결되자 그녀는 활동을 그만두었다.

“여기선 아무도 진짜로 할 생각은 안하니까.”

동아리를 나오면서 그녀가 한 말이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그녀는 수업시간에 거의 들어가지 않은 채 때늦은 사춘기를 겪었다. 교문 앞에서 대낮에 강소주를 마시거나, 락동아리에 들어가 드럼을 치기도 했고, 등록금인상반대운동을 한답시고 과하게 설치다가 교수에게 먹살을 잡힌 적도 있다.

나는 그런 그녀의 거의 유일한 친구다. 하는 짓과 달리 꽤나 시선을 끄는 외모였기에, 과의 남학생들은 그녀와 가까운 나에게 많은 접근을 시도했다. 소개시켜달라는 녀석들도 있었지만, 정작 본인에게 물어보면 코웃음을 치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결국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 행운의 사나이는 우리 과의 차석인 승철이었다. 학창시절 소문난 수재였던 그는 항상 과 수석을 차지했던 나를 시기하고 있었다. 세 학기 째 2등을 한 후 그는 술자리에서 폭발하여 나에게 술잔을 집어던졌고 선배와 동기들이 뜯어말리느라 애를 먹었다. 서먹서먹하게 지내던 그가 다시 말을 건 것은 그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였다.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말에 나는 놀랐고, 그녀가 선선히 승낙하자 한 번 더 놀랐다. 이번 한번만이야, 라고 말하며 그녀는 싱긋 웃었다. 아마 승철이 학교 신문사의 기사를 하고 있다는 말에 흥미를 가진 것 같았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의외로 그 후 그녀와 승철은 세 번 정도 더 만났다. 네 번째 만남에서 승철은 고백을 했고, 퇴짜를 맞았다. 다음날 술냄새를 풀풀 풍기며 녀석은 수척한 얼굴로 기회를 준 나에게 고맙다고 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다고 전해줘.”

라는 유치한 대사를 남기고 그는 사라졌다.

권력에의 의지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어머니는 집에서 10분 거리의 재래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다.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는 어머니가 최근 어두운 표정을 자주 짓는 것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최악의 불경기라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까지 해당될 줄이야.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학금을 타기 때문에 학비 걱정은 없고, 나 역시 그다지 돈을 많이 쓰는 타입의 인간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나는 그런 것을 신경쓰고 있지 않았다. 신입생인 나는 대학이라는 분위기에 빠져 있었고, 술에 빠져 있었고, 여자에 빠져 있었다. 술독에 빠진 나날이 계속되고, 미팅과 소개팅이 줄을 이었다. 명문대라는 간판은 스무 살의 여자아이들에게도 꽤 먹혀들었다. 밤새워 놀고 동이 틀 무렵 집에 들어오면, 지친 낙타처럼 곤히 자는 어머니의 얼굴이 안방의 문틈으로 보였다. 그 땐 웬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한 주가

시작되면 나는 또 청춘이란 오아시스를 찾아 사막을 헤매고 다녔다. 어차피 이것은 한때의 휴식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신기루가 사라지면 다시 보물찾기여행을 떠나는 상인이 될 것이다. 내 머릿속엔 누구의 것보다 우수한 나침반이 있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천재성이 발현된 것은 고2 여름방학 무렵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 간 병원에서 나는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3개월의 시한부 판정. 그러나 세 달이 지나도, 네 달이 지나도 나는 죽지 않았다. 종양이 성장을 멈춘 것이다. 의사는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두뇌를 감싸고 있는 수액의 흐름과, 뇌 표면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두터운 종양의 거북함도, 머릿속을 흐르는 피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다. 조금씩 뇌의 근육을 움직여보기 시작했다. 본적이 없는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다. 병실에 누워 눈을 감은 채 나는 훈련을 거듭했고, 두 달이 지날 무렵 마침내 뇌의 근육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일시에 혈관의 피를 집중시키자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주위의 사물 하나하나가 명료하게 다가왔고, 수백, 수천가지의 생각이 순식간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경을 집중시키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훈련으로 얻은 집중의 효과는 놀라웠다.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데 십 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어중간한 성적이었던 나는 고3이 된 이후 전국 최상위권의 등수를 유지했으며, 각종 경시대회의 상을 휩쓸었다. 가난해서 학원에도 보내지 못한 것을 가슴아파하던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교장은 멀리서도 나를 보고 뛰어와 껴안을 정도로 기뻐했다. 수업시간에 졸다가 담임에게 불러나가 개처럼 맞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잡종견이 순혈통의 명견으로 탈바꿈한 것 같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듬해 나는 당당하게 한국 최고의 일류대학에 합격했고, 일 년 후 연수와 친구가 되었다.

그녀가 왜 나를 친구로 접적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전 남자친구와 닮았기라도 한 건지, 그냥 만만해보였는지, 어떤 이유였든 나에겐 좋은 것이었다. 웬지 그 이끌림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운명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어떻게든 연관을 맺게 됐을 인연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다.

그녀가 원래부터 특이했던 건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녀는 남부럽지 않은 집안의 딸로써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단발머리에 은색 안경을 끼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새내기였던 그녀가 우연히 한 남학생에게 끌려 동아리에 가입했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가 빠진 것은 사랑뿐이 아니었다. 사실은 술과 연애와 섹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열치기들이 가득한, 무늬만 운동권인 그곳에서 그녀는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뜬 것이다. 인큐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깨어난 것처럼, 그녀는 자아각성의 힘찬 울음을 터뜨렸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유추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 소개팅주선이후 나는 승철과 꽤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그는 연수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정보의 출처를 물을 때마다 그는,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라고 하지 않더냐?”

라며 은근슬쩍 대답을 피했다. 연수에 대한 그의 집념은 빙산처럼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거대한 크기를 가진 것이었다. 나는 타이타닉 호의 선장이 된 것처럼 꺼림칙했다. 물론, 여전히 그녀는 승철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교양수업이 끝난 후 점심을 먹고, 연수와 나는 교내의 호숫가 앞에 서서 느긋하게 풍경을 구경했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켜자 그녀의 팔이 빠르게 날아와 내 손을 쳤다. 라이터가 멀리 날아가 호수에 풍덩 빠졌다.

“내 앞에서 라이터 켜지 말랬잖아.”

그녀가 불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깜빡한 대가로, 나는 방금 산 라이터를 잃어버려야 했다.

“미안. 하지만 잘 알잖아.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간단 말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말로는 어렸을 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서 불을 무서워한다고 한다. 잠시 그녀와 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이번엔 무슨 시위를 계획중인지 물어보았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부당해고근로자들의 건을 끝내고, 재래시장철거반대시위를 할거야.”

그녀의 목에 걸린 PDA엔 시위스케줄이 뽁뽁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다. 늘 가지고 다니던 다이어리를 잃어버린 후 구입한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그 평범한 검은색 다이어리를 그녀는 항상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가끔 벤치에 멍하니 앉아 혼자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내가 다가가면 서둘러 덮곤 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그녀는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약한 모습이 내 기억속에는 인상깊게 남아있다. 축축하게 젖은 눈동자를 내리깔고 있는 그녀는 마치 지구상에 홀로 남은 듯 무척 불안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자 다시 당당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녀는 최근엔 인터넷동호회를 활용하여 시위스케줄을 짜는 것 같아보였는데, 동아리를 나와서 활동하기엔 힘든 점이 많을 것 같다. 혼자보다는 역시 조직을 결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을 꺼내려다 관두었다. 그렇잖아도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 취미에 나를 끌어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렇잖아도 오늘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나는 점잖게 거절했다.

“너, 그 뛰어난 두뇌를 사회를 위해 쓰지 않는 건 범죄야. 알아?”

그건 좀 비약이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 본 적 없어? 어째서 인류의 이성이 진보하고 있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야만적인가? 어째서 가진 자는 더욱 배를 불리고 없는 자는 더욱 피폐해지는가? 어째서.....”

그녀는 잔뜩 흥분한 어조로 어지럽게 손짓을 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나는 먼 산을 바라보며 ‘음’ ‘그래?’ ‘아아.....’ 등등의 맞장구를 쳐주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그녀의 견해는 정론임이 틀림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큰 딜레마가 존재한다. 바로 그녀 자신이 부잣집 딸이란 현실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기업인 출신으로, 정계에 투신하여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그녀가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다. 언젠가 한 번 그런 말을 했다가 그녀의 눈에서 물기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내 생각을 눈치챘는지 그녀는 말을 멈추고 불쾌한 표정이 되었다.

“그래. 우리 집은 부자야.”

그녀는 불만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는 대단하셨다던데.”

그녀의 얼굴에 잠시 나의 표현력빈곤을 동정하는 빛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지. 동아리 때도 그랬어. 부잣집 따님이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냐. 그런 식이었지. 웃기는 자식들. 그럴듯한 말을 지껄이고 폼 잡으면서 속으론 여잘 늙힐 생각밖에 없는 것들이. 너도 내가 그저 철없다고만 생각하지?”

그 말에 뜨끔해진 나는 또다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길을 그다지 부정하는 아니다. 다만 아직 그런 것에 신경 쓸 나이는 아니므로 오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 이런 말을 꺼내면 논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질 것이 뻔하므로 잠자코 있었다. 일단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되면 정신이 멎어져버리는 데다가, 말쑤씨로도 상대가 안 되는 것이다. 뇌의 발달에 상관없이 버벅거리는 습관을 가진 나로선, 그녀의 그러한 언변이 부럽기도 했다. 이른바 말발이란 것은 큰 장점이 된다. 학점을 더 잘 받을 수도 있고, 쉽게 승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고로 말 잘하는 사람이 굶어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성공의 중요한 척도가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언젠가 너도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단지 먹고 사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남자처럼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웬지 나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 두 세계는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멀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그 뒷모습에서 나는 눈을 땔 수 없었다.

권력에의 의지

요새 어머니는 부쩍 귀가시간이 늦어져서, 혼자 저녁을 먹게 되는 날이 잦았다. 대충 냉장고안의 반찬을 꺼내어 상을 차리고, TV를 켰더니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다. 나는 뜻밖의 광경에 밥을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9시뉴스에 연수가 나오고 있었다. 차분한 말투로 또박또박 인터뷰를 하고 있었지만, 긴장한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까 얘기했던 부당해고근로자들의 시위현장이었다. 시꺼먼 아저씨들 사이에서 그들과 같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피켓을 흔드는 장면도 나왔다. 모자이크라도 하지, 부모님이라도 보면 어찌려구 저런담. 그런 생각을 하며 한참을 웃다가, 문득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삼년 전 뇌의 능력이 발달하면서, 육감 또한 예언이라 부를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길고 거대한 몸통을 가진 녹색 뱀이 어머니의 몸을 칭칭 감고 있다. 나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뱀을 떼어내려 애쓴다. 차갑고 미끈미끈한 감촉이 섬뜩하다. 어느샌가 뱀은 사라지고 없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어머니가 날 보고 비명을 지른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입에서 가늘고 시뻘건 혀가 갈라지며 튀어나온다. 나는 천천히 몸을 내려다본다. 내가 뱀이 되어 있다.

놀라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니, 땀에 젖은 베개가 축축하다. 머리가죽이 갑갑해지고 두개골이 빠개질 것 같다. 이럴 때 나의 뇌는 미친 듯이 날뛰곤 한다. 격렬하게 꿈틀거리며 금방이라도 골통을 부수고 나올 듯 난리를 쳐댄다. 의사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다. 뇌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인 셈인데, 머릿속에서 뇌가 둘로 나뉘어 자기들 멋대로 떠들어대는 것이다. 좌뇌와 우뇌 모두 각기 자신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흔히 알려진 대로 감성의 우뇌와 이성의 좌뇌다. 때론 좌뇌는 우뇌에게 투덜댄다.

- 나라고 감정이 없는 건 아냐. 다들 날 이성적이고 논리정연하며 계산적인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항상 그런 고정관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자유분방한 너는 이런 기분을 알 수 없겠지.

-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는군. 내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어. 사람들은 더 이상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스스로의 감정을 최대한 죽이려 하지. 나는 존재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 존재의 위협?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잇. 그만 닥쳐. 점점 미쳐가는 것 같다. 유리에 금이 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냉수를 마시고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늘 그렇듯, 머릿속이 시끄러우면 잠을 잘 수 없다. 불면증이란 어째서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가. 불면증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운명이라면, 나에게만 주어진 운명도 있을 것이다. 정신분열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이것들도 사랑해야겠지. 운명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 또한 인간뿐이다. 사바나의 사슴이 나는 왜 늘 사자에게 쫓기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라는 생각을 할리는 없겠지. 그래서 인간은 가장 슬픈 존재다. 나란 인간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연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화와 문자에도 반응이 없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나와도 알고 지내는 그녀의 여동생으로부터였다. 나는 연락을 받자마자 오후수업도 제끼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역시나, 불길한 예감이 적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시도를 한 연수는 오늘 아침에야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고, 병실 앞에 앉아있던 그녀의 여동생은 말했다. 역시 발단은 뉴스에 방영된 연수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악어가죽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다 그것을 보곤 노발대발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행실을 깨문고는, 가위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버리고, 강제로 유학을 보내버리겠다고 욕박질렀다. 새벽에 욕조에서 그녀는 손목을 면도칼로 그었다. 다행히 그녀의 어머니가 일찍 그것을 발견하여 구급차를 불렀다.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혼수상태였고, 깨어난 후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어야했다.

홀쩍거리는 여동생을 뒤로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병실침대에 누워 쉼쉼 자고 있었다. 날서고 도발적이던 얼굴이 지금은 엄마를 잃어버린 다섯 살짜리 아이처럼 보였다. 나는 웬지 못할 짓을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항상 붙어 다니면서도 난 그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여기까지 몰았는지 몰랐다. 항상 혼자서, 무엇과 그렇게 싸우고 있었을까?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삶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절실한 이유였던 말인가? 링거주사가 꽂힌 얇은 팔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보였다.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이마에 손을 뻗어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자, 그녀가 몸을 뒤척였다.

“상현아.....상현아.....미안해.....”

메마른 입술에서 가냘픈 소리가 흘러나왔다. 상현? 전 남자친구인가? 슬픈 꿈을 꾸는 것인지, 눈가에서 한 줄기 액체가 그녀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깨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것을 닦아주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연수의 자살기도로 인해, 나의 의식은 격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접하고 있던 세상이 내게도 한결음씩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몸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조금씩 낮설게 느껴질수록, 머리에선 연수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나는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가 있는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횡단보도를 건너 시장입구로 들어가는 골목길을 지나치는데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든 것이 보였다. 이상함을 느끼고 서둘러 뛰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구청에서 나온 듯한 용역업체의 철거반원들이 무자비하게 시장을 때려부수고 있었다. 곳곳에서 시장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듯 숙련된 동작으로 천막과 좌판을 부수고 걷어내었다. 시장사람들은 곳곳에서 계란과 쓰레기들을 던지며 저항했지만, 포크레인까지 동원한 철거를 막을 수는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라?”

“시에서 여기 재개발부지로 선정한다고 했었잖아. 시장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통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청에서 바로 정리하려고 하나봐.”

“대책도 안 마련해주면 어떻게 하라고.....쫓쫓.”

최근 유달리 표정이 어두웠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주춤거리며 사람들 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펄쩍 정신이 들었다. 난장판 속을 가로질러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큰 덩치의 철거반원에게 매달려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다. 좌판은 걷어지고, 양배추와 상추 따위가 여기저기 흩투성이가 되어 널려있었다.

“아이고, 그만 해라 이놈들아. 어떻게 먹고 살라고!”

울부짖는 어머니를 철거반원이 거칠게 떠밀었다. 땅바닥에 나동그라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감싸 안았다. 그 광경을 보자 눈앞에 파랗게 불뚱이 튀었다.

“그만 하라고, 이 개자식들아!”

나는 남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 불시에 일격을 당한 그가 뒤로 쓰러졌다. 눈이 뒤집혀 미친듯이 달려들어 걷어차는데 뒷덜미를 누군가 잡아끌었다. 나는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주위의 철거반원들이 몰려들어 등글게 둘러싸고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댔다. 정신없이 얻어맞다가 한 명의 다리를 붙잡고 힘껏 깨물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팔꿈치로 내 등짝을 내리찍었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입에서 시큰한 피맛이 느껴졌다. 철거반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지거리, 어머니의 비명소리 등이 뒤섞여 들려왔다. 그 소리는 혼미한 정신과 함께 점점 아련해져 갔다.

혼란한 상황은 생선가게 김 할머니가 철거반원에 떠밀려 땅에 머리를 부딪쳐 실려나가면서 종료되었다. 철거는 결국 중단되었고, 나는 몇몇 시장사람들과 함께 파출소에 끌려갔다. 철거반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감방에 처넣으라며

노발대발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여러 사람을 붙잡고 사정사정하던 어머니가 차가운 파출소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봐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요. 제발.....이렇게 빙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막혔다. 말을 하고 싶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일어나,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꿇어오르던 분노는 사라지고 가슴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지며 어지러움이 엄습한다. 돈다. 뱅글뱅글. 세상이 돌고 있다. 이것은 빈혈이 아니었다. 멀미다. 이제야 나는 지금껏 멀미조차 느껴지지 않는, 비단길의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얼마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무렵 나는 마을버스의 좌석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버스 안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사이에도,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누더기가 된 옷을 갈아입고 피가 덕지덕지 묻은 얼굴을 씻었다. 안방에 가보니 어머니는 많이 고단했었는지 이불도 덮지 않고 맨바닥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주름이 깊게 팬 입가가 축 늘어져있다. 무릎을 감싼 봉대가 반쯤 풀려 너털거린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불을 꺼내 목 아래까지 덮어주었다. 그리곤 그대로 담배를 켜켜들고 조심스레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둡이 질게 깔려있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길을 걸었다. 어슴푸레한 가로등 불빛을 따라 한참을 걸으니, 산책할 때 자주 지나치던 초등학교가 나왔다.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자 몇몇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다.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공놀이를 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평소에는 평화롭게 보였던 그 광경들이 지금은 웬지 동화속의 장면들처럼 이질감이 느껴진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사람을 때리다니. 내가 이 손으로? 꿈을 꾸 게 아닐까? 멍하니 벤치에 앉아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드니, 저 멀리에 어머니가 다니던 동네교회의 빨간 십자가가 보인다. 그 위로 천천히 연수의 얼굴이 떠오른다.

‘신은 없어’

그래, 있다면 잔혹한 신이겠지. 신이시여,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뭔가요?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건가요?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 발아래 아스팔트가 비웃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입을 벌린다. 납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운 좌절이 내 몸을 땅 밑으로 잡아끌었다. 이십일 년 동안 세상을 살아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니. 무력함이란 것은 정말이지 급작스럽게 찾아왔다.

그때, 쿵, 하는 소리의 궤적이 정수리로부터 들어와 온몸을 꿰뚫었다.

동시에, 눈앞이 번쩍이며 전신의 피가 뇌를 향해 모여들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고 있었다. 다시 한 번 쿵, 소리가 의식을 깨운다.

- 자, 이제 정신차리고. 이제부터 냉정하게 생각해서, 치밀하게 행동해야 해.

좌뇌가 말한다. 이번엔 우뇌도 반박하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오감(五感)이 선명해지며, 떨어지는 빗방울의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졌다. 지금까지 난 내 인생의 주체였던가? 생각해보면, 천재가 된 것도 어쩌다 신이 장난삼아 날린 행운의 벼락에 맞은 것뿐이다. 그래, 이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거야. 근데 뭘 어떻게 하지? 일단 차분히 생각해보자.

다시 집에 돌아온 나는 재래시장철거 등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다.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된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다. 시에선 쫓겨나는 영세상인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언론보도 따위는 일절 없었다. 대충 짐작이 간다. 애당초 그렇게 될 것이었다. 으리으리한 도시형 뉴타운은 그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복합상가가 들어서고, 막대한 수익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고, 들러붙어 이권을 챙기려는 우리들은 똥파리처럼 달라붙을 것이다. 새 비행기에 이코노미클래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나라한 현실의 악취에 나는 질식할 지경이었다. 암튼 뭐든 해야 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때 주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액정에 표시된 번호를 보니 승철이었다. 무슨 일이지?

“너.....지금 당장.....빨리.....바그너로 와.....”

심하게 혀가 꼬인 말투였다. 그 말과 동시에 전화는 끊겨버렸다.

<바그너>는 우리 과 학생들이 자주 가던 술집이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니, 거의 테이블 위에 엎어진 상태로 술을 입에 부어넣고 있는 괴인(怪人)이 있었다. 승철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지독한 술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빈 소주병들이 테이블 위를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의 입에선 식도로 흘러들어가지 못한 술들이 새어나왔다. 어깨를 잡고 흔들자, 그는 이전 년 만에 잠에서 깬 미이라같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두 눈에 파란 불길 이이는 것이 보였다.

“여.....연수. 어떻게 된 거야.....자살기도라니.....”

아아. 그것 때문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의 정보망은 대단했다. 나는 차분히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자 그는 닭똥같은 눈물을 펄펄 흘렸다. 상처입은 짐승같은 소리로 흐느끼던 그는 빈 소주병을 부여잡고 나를 노려보았다.

“너.....너 이 자식 뭐한 거야!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비.....빌어먹을.....가엾은 연수.....”

한참동안 그 상태로 노려보던 그의 동공이 천천히 풀렸다. 그리고 그는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맥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더니, 술집 통로에 대자로 뺨어버렸다. 눈가엔 처절한 한 줄기 이슬이 맺혀있었다.

인사불성이 된 승철을 등에 업고 나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자취집이라고 하기엔 꽤나 큰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불을 켜지 않아 어두컴컴한 가운데서도 두 개의 방과 널따란 부엌 겸 마루가 보였다. 간신히 늘어진 승철을 운반한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고, 아무렇게나 그를 마룻바닥에 던져놓고는 옆방으로 건너가 잠이 들었다. 창가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난 그 방 안의 정경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몰래 찍은 듯한 연수의 수많은 사진들이 그 안을 장식하고 있었다. 벽에도, 책상에도, 액자에도, 하다못해 베개외피와 잠옷에도 프린팅되어 있었다. 오싹한 느낌에 닭살이 돋았다. 연수의 사진으로 가득한 벽과 책상 위의 모습은 마치 스틸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녀석이 왜 평소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들이지 않는지 알 것 같았다. 무서운 놈.....이건 범수수준인데. 그의 집님이 느껴지는 컬렉션들의 감상을 끝낼 무렵 책상서랍 안쪽에서 검정색 다이어리를 발견했다. 틀림없이, 매우 낫익은 물건이다. 얼마 전에 연수가 잃어버린 그것이 틀림없다. 이걸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세상모르게 자고 있는 놈의 얼굴은 몹시 편안하게 보였다. 대충 다이어리의 페이지를 넘겨보던 중 특이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반듯하게 잘라진 신문의 조각이 붙여진 페이지였다. 종이가 좀 오래되었는지 누렇게 바래져있었다. 나는 거기에 써있는 기사를 읽어보았다.

<.....에서 권모(52)씨가 술에 취해 자택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대학생 아들(21), 중학생 딸(16) 등 일가족이 숨졌다. 절물점을 하던 권씨는 재작년 죽은 아내의 병원비 문제로 사채를 끌어다 쓴 것이 화근이 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일가족 자살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신문기사였다. 시위와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다이어리를 읽지 않고 덮었다. 내용이 궁금하긴 했지만 그보다 나의 시선을 끈 것은, 책상 옆 선반위에 놓인 카메라였다. 취재용으로 쓰이는 고가의 카메라. 머릿속의 전구가 번쩍하고 켜졌다. 나는 승철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던 그는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치고 나서야 눈을 떴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나는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숙취로 인한 두통 때문인지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간단한 일이야. 시위하는데 따라와서 내 모습과 현장의 광경을 찍고 기사를 써주면 돼. 철저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조로 말이야. 그리고 학교신문에도 올리고, 언론에도 보내고, 아무튼 적극적인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승철은 몹시 짜증이 나는 듯 했다. 나는 등 뒤에 감추었던 다이어리를 녀석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컬렉션 끝내주던데. 이 사실을 연수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눈앞에서 흔들리는 다이어리를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혀.....협박하는 거냐.”

“무슨 소리, 난 그냥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할 뿐인데?”

그 후의 대화는 일사천리로 전개되어, 우리는 함께 출정(出征)하기로 했다. 관련자료들을 수집하고, 시청과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시장사람들을 찾아가 단결을 촉구했다. 졸지에 휘말린 승철은 투덜거리면서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다. 협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시나 저널리스트의 피가 흐르는 탓이리라. 그렇게 일을 진행해가던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 머리를 부딪쳐 입원한 후 계속 상태가 악화되던 김할머니가 숨을 거둔 것이다.

영원한 회귀

빈소는 몹시 썰렁했고, 시장사람들이 돈을 모아 화장비용을 대기로 했다. 김할머니는 연고라곤 전혀 없어서 평소 그나마 절친했던 생선가게 김씨아저씨가 상주를 섰다. 그는 이튿날 아는 동생이라며 날카로운 눈을 가진 이십대 중반의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다. 그 남자는 자신이 운동권 출신이라며, 시장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청으로 쳐들어가는 식의 말을 하며 분위기를 격앙시켰다. 내가 끼어들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나 또한 잔뜩 격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열흘이 지나도록 언론사에 제보한 자료는 보도되지 않았고, 시에서는 항의서한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힘없는 서민을 죽여나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까? 우리는 싸워야합니다. 말로 해서 알아듣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폭력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예로부터 진정한 혁명은 폭력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분한 시장사람들의 동조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졌다. 불안한 심정으로 나는 집으로 향했다. 철거반원을 때린 사건 이후 계속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그 날은 유독 열이 심했다. 밤새 끔찍거리는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다. 아침 해가 뜰 때쯤에야 자리에 누운 나는, 핸드폰 벨소리에 얼마 자지도 못하고 잤다.

“야, 큰일났어. 시장사람들 다 구청으로 눈에 핏발서가지고 몰려갔어! 어디서 구했는지 각목에 쇠파이프에, 주.....죽창까지 있더라니까.”

승철의 말에 잠이 확 달아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대충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구청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병원 앞에선 승철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승철에게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곤 곧장 구청으로 달려갔다. 어젯밤 시장사람들의 흥분된 눈빛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들은 본디 매우 순박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고 했던가. 갈 곳 없이 내몰린 사람들이라 무슨 일을 저지르지 몰랐다. 승철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헉헉거리며 내 뒤를 쫓았다.

구청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일은 벌어지고 있었다. 진압봉과 방패를 든 전경들과 죽창에 쇠파이프를 든 시장사람들이 밀고 밀리며 격렬히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승철의 말처럼 눈에 핏발이 선 생선가게 김씨아저씨가 중세시대의 돌격대장처럼 전경 앞에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다. 공중을 가르며 날아온 벽돌과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사망에 플래카드와 각목,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저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잠깐 진정하고.....악!”

어딘가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이마를 강타했다. 나에게 신경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미약한 목소리는 수많은 소음들에 묻혀서 들리지 않았다. 승철은 멀쩡이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서 사진기를 들고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부어오른 이마를 문지르며 그를 향해 찍으라는 손짓을 보냈다. 녀석은 머뭇머뭇하다가 카메라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 구청 쪽을 보니, 이미 그곳은 수습할 수 없는 전쟁터가 되어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이 악귀가면을 쓴 듯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세계는 너무나도 평온한 온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러한 세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나의 세계와 이러한 세계의 접점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전경들의 방패가 땅바닥에 넘어진 과일가게 껌씨아저씨의 등짝을 내리찍었다. 껌씨아줌마가 전경의 목에 매달렸다가 휘두르는 진압봉에 입술이 터져 쓰러졌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몸이 굳어서 한 걸음도 땔 수 없었다. 좌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 역시 사람은 안하던 짓을 하면 안 되나봐. 애당초 난 이런 짓에 어울리지 않았어.
- 무슨 소리야?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야. 어서 가서 싸우지 않고 뭐하고 있어?

다시 둘의 논쟁이 시작된다. 복잡하다. 모든 것이 복잡하다. 애당초 난 여기에 왜 온 거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 아직도 누군가 너에게 설명해주길 바라고 있냐?

차디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연수. 연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나처럼 부들부들 떨었을까? 간신히 힘겹게 발을 떼어 걸어간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몸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폭풍의 한가운데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수많은 죽창들과 소주병들이 허공을 가르다. 고함치는 소리,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바람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여러 가지 소리가 하나로 뭉뚱그려져 혼미한 의식을 강타한다. 꿈의 한 가운뎃길을 걷는 듯 시야가 흐릿하다.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대며 걸어가니 여기저기서 어깨가 부딪힌다. 여기가 정말로 인간들의 세상인가? 짐승들의 울부짖음밖에 들려오지 않는다. 나는 사바나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사슴처럼 공포를 느꼈다.

그때, 무엇인가가 회색의 하늘을 가로질러 내 앞에 떨어지며 번쩍한다. 눈부신 섬광에 갑자기 뇌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속overclock을 시작한다. 익숙한, 세포 하나하나가 곤두서는 느낌. 슬로비디오처럼 모든 존재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느려진다.

균열이다.

철저하게 짜 맞추어진 시간의 틈 속에 나만이 어긋나 있는 것 같다.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전율이 전신에 흐르고,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에 두 뺨이 환희로 붉게 물든다. 주위를 둘러본다.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고, 코미디영화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몸짓에 웃음이 터져 나온다. 악귀같은 그들의 표정은 우스꽝스러운 일그러짐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울부짖음. 문명의 탈을 쓴 야생. 그랬다.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지구는 먹고 먹히는 짐승들의 정글에 불과했다.

가없는 양들아, 보아라. 내가 여기 있도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곳에 왔도다. 쫓는 자, 쫓기는 자, 그 뒤에 숨어서 쇼를 관람하는 자, 어차피 모두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것 뿐.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다른 곳에 있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희의 등불이 되리라.

나는 눈을 감고 그대로 우뚝 서서 두 팔을 벌린다. 정수리를 꿰뚫리는 듯한 감각이 뇌를 시원하게 한다.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가 날아와 몸 곳곳을 여러 차례 두들긴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외부의 감각이다. 이제 나는 완전히 별개의 공간에 존재한다. 모든 걸 잊고, 이 순간 보고 싶은 것을 떠올린다. 작은 새처럼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연수의 모습이 어둠을 밝히듯 그려진다. 에덴동산을 흐르는 강줄기처럼 눈물이 그녀의 고운 뺨을 타고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강을 건너 그녀와 단둘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순간 둔탁한 충격이 왼쪽 눈에서 느껴진다. 시야가 순식간에 붉게 물든다. 나는 섬뜩한 아픔에 눈을 움켜쥐고 털썩 주저앉았다. VTR의 일시정지를 해제한 것처럼, 어느새 시간의 흐름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다. 컷가를 어지럽히는 소음도 다시 들려온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려하는데 커튼이 반쯤 쳐진 듯 화면이 일그러져있다. 땅바닥에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진다. 어지러움이 엄습한다. 빈혈이다. 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바닥에 스르륵 쓰러졌다.

시야가 더욱 흐려졌다. 나는 땅바닥에 뺨을 대고 수많은 뿌연 점들이 여기 저기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중앙의 점을 향해 점차로 일그러지며 축소되어갔다. 이윽고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변하더니, 빛은 완전히 소실되었다. 멀어지는 의식 너머로 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열 두 시간 후 병실침대에서 깨어난 나는 소주병조각이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 실명할 뻔 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고, 분노한 어머니에게 무려 네 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었고, 바로 아래층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찾아와 무용담을 들은 연수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날 업고 온 승철은 하필 연수가 입원한 이 병원으로 왔으니, 그 속내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도착하자마자 높은 날 응급실에 내던지듯 맡겨놓고는 연수의 병실을 찾아 헤맸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병원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보니 잠들어 있던 중 얼핏 그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자기도 그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킁킁거리며 연수는 이야기했다.

우리는 나란히 병원 앞의 산책로를 걸었다. 봄날의 햇살은 눈부셨고, 풀들은 바람에 쓸려 파르르 떨었다. 그 풍경 속을 걸으며, 나는 힐끗힐끗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이전과는 다른, 어떤 미묘한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씩씩한 목소리로 여전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면 말야, 정당을 만들자. 사회정의실현을 꿈꾸는 청년당. 어때?”

“국회의원이래도 되겠다는 거야? 누가 뽑아주겠어?”

“바보. 시작이 반이란 얘기도 못 들어봤어? 당선 따윈 안 되어도 좋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돼.”

“난 군대도 가야 돼. 어쨌든 무리라고.”

“뭐야? 너 아직 군대도 안 갔어?”

“스물 한 살이다! 갔다 왔을 리가 있겠냐?”

그녀는 혀를 끌끌 차며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에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군대가 몇 개월인지 알고나 있는 건가?

“뭐, 좋아. 네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활동자금을 마련하면 되겠군. 음.....근데 어떻게 벌지? 생각을 해보자.....생각을.....”

그런 것보다 당장 방세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녀는 강제유학은 면했지만 부친에게 혼자 살아보라는 엄명을 받고 내쳐진 신세니 말이다. 뭐 아무튼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었다. 나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세였으니까. 시장은 철거되었고, 어머니는 아픈 무릎을 끌고 주방아줌마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나는 퇴원 즉시 과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도 고액과외로, 강남청소년들을 집중공략해볼까.....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웬지 내리깔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한 빛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벤치에 홀로 앉아 외로운 표정을 짓고 있던 때처럼. 그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대로 두면 그녀 역시 고장나버릴 것 같아서 불안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녀를 껴안았다.

갑작스런 포옹에 그녀는 잠시 움찔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나의 몸이 떨어지자,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표정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살며시 팔로 머리를 감아 어깨로 끌어당기자, 그녀가 곧 폭죽처럼 펄펄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그녀의 머리칼에서 샴푸냄새가 났다. 초콜릿으로 만든 백합꽃처럼 아주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였다. 그 냄새가 나에게 속삭였다.

— 돌아온 걸 환영해, 인간들의 세상으로.